

3

중복 게재 (redundant publication)의 문제점

임 정 기 (서울의대 진단방사선과)

서론

대부분의 학술지는 과거에 이미 타 학술지에 출간되었거나 출간 계획중인 원고를 게재하려 않으며 이는 독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자 하는 편집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의학분야의 학술지에서 중복게재의 예는 드물지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의학윤리, 의학정보의 교란 등의 면에서 중대한 문제로 취급이 되고 학술지의 편집인으로서의 이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중복게재의 정의를 살펴보고, 실제로 얼마나 중복게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중복게재 혹은 그 의도가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인이 취하여야 하는 행동은 어떠한 것인가를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중복게재의 정의

중복 (redundant) 혹은 이중 (duplicate) 게재이라 함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중첩된 논문을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일반적으로 주요 정기간행물의 독자는 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모두 중복 출간이 아닌 원저라고 간주하게 되며 이는 국제저작권법(international copyright law), 윤리 지도 (ethical conduct), 정보자원 효율성(cost-effective use of resources) 등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타 학술지에서 게재 거부된 원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중복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학회에서 초록 또는 포스터 발표 등의 예비보고 한 결과를 논문으로 완성시켜 발표하는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고 투고 시 전에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2).

전문학회의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의 내용을 예비보고 혹은 회보 (proceeding)의 형태로 출간하였을 시 이를 일반적으로 원저로 인정하지는 않아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전술한 바 있으나, 만일 자세한 자료, 도표, 표, 사진 등이 수록된 경우 학술지에 따라 이를 원저로 인정하여 게재를 거부하려는 학술지도 있다(3). 최근 인터넷을 통한 검색 및 접근이 원활하여 짐에 따라 중복 출간 판정 기준이 점차 엄격하여 지고 있다.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에 의하면 "---- 과거에 출간된 적이 없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떠한 언어로도, 어디에서든, 일부 혹은 전부를 막론하고, 인쇄 혹은 전자 매체를 막론하고, 학술지의 Index Medicus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에 저자의 서명 여부를 막론하고, 출간된 적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3-5).

허용 가능한 이차 게재 (secondary publication) 의 정의

중복출간과 구분하여 정당화 될 수 있는 이차출간(secondary publication)을 국제편집인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1. 저자는 원전을 출간한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출간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출간을 하려는 학술지의 편집인은 원전의 복사물, 별쇄본 또는 원고 그 자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
2. 원전을 출간한 학술지의 선취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일차 출간과 이차 출간의 사이는 최소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3. 이차 출간을 하는 학술지는 원전 학술지와 다른 독자층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4. 이차 출간한 논문은 원전의 자료와 해석을 성실하게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5. 이차 출간한 논문의 표제지의 각주에 이 논문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간되었음을 독자, 상호심사자, 색인초록기관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전을 기록하여야 한다.

왜 중복 게재의 유혹을 받는가?

중복게재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임용, 승진, 업적에 따른 차등 보수, 동료로부터의 평가 등 다양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게재의 유혹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유혹은 중복 게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거나, 중복게재가 발견되었을 시 사후 조치가 미흡할 경우 더욱 강해 질 수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논문 검색이 용이하여 짐에 따라 원고 심의 과정에서 심의자(reviewer)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복 출간의 현황은 어떠한가?

과거 학술논문 정보가 인쇄 매체에 국한되었던 시절에는 국내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겹치는 논문이 해외 유수의 학술지에 게재 된 바 있다. 대한방사선의학회의 경우 1980년대 까지는 대한방사선의학회지와 해외학술지의 대상 독자의 상이성, 대한방사선의학회지의 외국 독자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그리고 국내 연구의 해외 학술지 게재 유도라는 시기적 전략성 등의 여건에 따라 의도적 목인이 있었던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방사선의학회의 홈페이지 website를 통하여 대한방사선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문이 전세계의 연구자, 색인 관련 단체 및 회사에 개방되어 있어서 언어, 지역, 대상 독자의 상이성에 관계없이 중복 출간은 용이하게 발견되고 발견될 경우 심각한 문제 제기가 뒤따르게 된다.

해외 학술지의 경우 중복 게재가 판명된 논문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고 있으며 이의 목록은 현재Entrez PubMed에서 "notice of duplicate publication"이라는 중심단어로 30편 여 편이 검색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엄격한 척도를 사용하였을 경우 얼마나 많은 논문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Bailey (6)의 연구에 의하면,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에 8년간 1965명의 저자가 게재한1082개

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중 1000명의 저자를 임의 추출하고 이들이 12년간 게재한 총 24,353개의 논문에 대하여 제목의 유사성을 검색하고 유사할 경우 논문을 정밀 조사한 결과, 1000명의 저자 중 228명이 유사한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이중 201명 (1000명중 20%)이 644 편의 논문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중 게재를 하였다 (1.8% duplication rate). 이중 가장 흔한 형태는 매우 유사한 데이터와 결론을 순차적으로 기간을 두고 게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거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32%,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11% 이었다. 간호학 계통의 논문을 조사한 Blancett 등 (7)에 의하면 5년간 77명의 저자에 의하여 게재된 642편의 논문 중 181편(28%)이 이중게재 이었으며, 41명 (53%)의 저자가 적어도 한가지 형태의 이중게재를 하였고, 59편 (9%)의 이중게재 된 논문이 원전(primary source)을 인용하지 않았다.

은밀하게 이중 게재된 논문의 윤리적 문제나 색인 교란 효과 이외에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Tramer 등 (8)이 ondansetron의 수술 후 항 구토 효과에 대한 84 개의 무작위임상시험(randomized trial)에 대한 논문의 meta-analysis에 의하면, 9개의 trial 결과가 14개의 차후의 연구 결과에 교차색인(cross reference) 없이 사용되어 17%가 이중 게재에 해당되었고, 28%의 환자 데이터가 이중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중 게재된 논문은 그렇지 않은 논문에 비하여 치료 효과를 23% 부풀려 보고하였다.

이러한 중복게재를 막기 위하여 대한방사선의학회지는 1994년 1월 1일 대폭적인 투고규정의 개정과 함께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타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다" 라는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에 전 저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는 저자의 명백한 중복 출간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인 것이다.

대한방사선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검토와 판정의 과정을 거쳐 중복 게재로 판정되어 문제화 된 건이 최근 5년간 2건이 있다. 그 중 하나는 1996년 후반에 대한방사선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1997년 초에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Tomography에 게재된 것으로서 이 당시 위원회에서는 공식

적 문제 제기가 처음 된 사례이므로 저자 전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 할 경우 이를 대한방사선의학회지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 투고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하나는 2001년에 대한방사선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제적으로 같은 논문이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에 5개월의 간격으로 출간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대한방사선의학회지에 게재된 제1저자가 중복 출간임을 인정 하였다. 편집인은 저자 전원, 제1저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이중게재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대한방사선의학회지의 독자에게 편집인의 글로 고지하였고 (9), 해당 논문을 on-line 및 off-line 색인에서 제외하였으며, 그리고별책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였다.

중복게재에 대한 편집인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편집인은 저자를 보호할 의무와 함께 이중게재와 같은 부정행위 (misconduct)를 감시하여야 할 의무도 지닌다. 부정행위가 파악이 된 경우에는 이미 출간된 논문은 물론 심사과정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즉, 원고심사 시 단순한 게재거부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정행위의 추적에 대한 도의적 의무도 있는 것이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연구와 논문출간의 윤리적 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설립된 간행윤리위원회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의 "올바른 간행 규범"에 의하면 부정행위에 대한 강도에 따른 순차적 제재 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 조치는 1개항 혹은 여러 개 항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 1) 원칙을 잘못 이해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교육적 서한 발송.
- 2) 향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견책과 경고의 서한 발송

- 3) 해당 기관장 혹은 연구비 지원 기관에게 공식적 서한 발송
- 4) 중복출간 혹은 표절에 대한 고지의 글 게재
- 5) 위반사항의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 게재
- 6) 위반에 책임 있는 저자 개인, 연구진, 혹은 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원고 투고 금지 조치
- 7) 타 학술지 편집인과 색인기관에 알리면서 공식적으로 해당 학술지에서 삭제
- 8) 해당 사례를 정해진 과정에 따라 조사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의협 혹은 기타의 공공 기관에 고지

결 론

중복 게재는 국내외의 문헌 검색기관의 기능이 활성화 됨에 따라 점차 용이하게 발견되며, 이에 따라 국내 학술지 편집인은 이러한 사안에 대면하게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경각심 유발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시 편집인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하고 이를 독자에게 고지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Ann Intern Med* 1997;126:36-47
2.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J Urol* 2000;163:249-252
3. Rogers LF. From the editor's notebook. In any language. *AJR* 2000; 174:1487

4. Rogers LF. Duplicate publication or not? Case 1 (letter). AJR 2000;174: 1789-1790
5. Rogers LF. Duplicate publication or not? Case 2 (letter). AJR 2000;174: 1791
6. Bailey BJ. Duplicate publication in the field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2;126:211-216
7. Blancett SS, Flanagan A, Young RK. Dupliate publication in the nursing literature. Image J Nurs Sch 1995;27:51-56
8. Tramer MR, Reynold DJ, Moore RA, McQuay HJ. Impact of covert duplicate publication on meta-analysis: a case study. BMJ 1997;315:635-640
9. 임정기. 중복출간에 대한 편집인의 글. 대한방사선학회지 2001;44:397-398